

**“암 투병과 치료로 중단된 청년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다”**  
**한국 BMS 제약, 밀알복지재단과 청년 암환자 자립 돕는**  
**‘리부트(Reboot)’ 2기 지원자 모집**

- 1기, 리부트 통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지원 받아 독립출판물 제작, 유튜브 크리에이터 데뷔 등 다양한 성과내

(서울, 2019년 7월 29일) - 한국BMS제약(대표 김진영)이 후원하고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이 진행하는 청년 암환자의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리부트(Reboot)’가 2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리부트(Reboot)’는 암 투병과 치료로 학업 및 사회와 단절을 경험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국BMS제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사내 봉사활동 팀인 H2O(Hearts & Hands as One)의 주도로 진행되는 ‘리부트’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부금과 회사의 후원금으로 이뤄진 1:1 매칭 그랜트로 운영된다.

이번 리부트 2기 모집은 암 진단 후 치료를 받고 관해(완치) 판정을 받은 만 19~39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www.miral.org](http://www.miral.org)) 공지사항에 게재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miral4664@hanmail.net](mailto:miral4664@hanmail.net))로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7월 23일(화)부터 8월 18일(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총 10명을 선정한다. 리부트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10명의 청년들은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본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취업·교육 및 문화 정서 지원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작년 리부트 1기에 모집된 10명의 청년들은 제과·제빵 자격증 취득 과정, 플로리스트 자격과정, 대학 전공 학업을 위한 장비와 서적 구매 등 자신이 세운 계획을 리부트를 통해 실현하고, 독립출판물을 제작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데뷔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투병 기간 하지 못한 가족여행, 심리상담 등 정서 지원을 통해 힘겨운 암 투병 기간에 지쳤던 마음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혈액암을 극복하고 투병 기간 쓴 글들을 포함해 독립 출판의 꿈을 이룬 이지현씨(가명, 25세)는 “리부트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꿈 꾀온 일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라며,

“한국BMS제약의 도움으로 독립출판의 꿈을 이룬 것처럼, 나도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BMS제약 김진영 대표는 “치료기술의 발달로 암 생존율은 높아졌지만 투병 이후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 암 경험자들은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2030대 청년 암환자들은 투병 이후 진로, 결혼, 육아 등 중요한 생애 과제에 직면하는 시기임에도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찾기 힘들다. 리부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암환자들이 학업과 경력의 단절을 딛고 가족과 사회 속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BMS제약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 아래 지난 1999년부터 ‘동명아동복지센터’,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청년 암환자를 지원하는 ‘리부트(Reboot)’ 프로그램 외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함께 소아암 아동청소년의 치료비와 성장 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리부틴 (RebooTeen)’ 후원을 통해 질환 치료를 넘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

### **Disclaimer**

한국BMS제약은 질환과 의약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며, 본 자료는 특정 제품에 대한 대중 광고나 판촉목적과는 무관합니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및 게재여부에 대해서는 기자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BMS제약 회사 소개**

한국BMS제약은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회사인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Bristol-Myers Squibb)의 한국 자회사이다([www.bms.com/kr](http://www.bms.com/kr)). ‘혁신적인 의약품을 연구개발, 공급해 환자들이 중증질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미션 아래, 암, 바이러스성 간질환,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등 중증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 브리스톨-마이어스 스쿼브(Bristol-Myers Squibb)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는 BMS.com, 또는 LinkedIn, Twitter, YouTube에서 확인할 수 있다.